

## 2018년 사업평가

2018년을 맞이할 즈음 우리는 냉정했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다. 비단 기본소득 의제가 공론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는다는가 기본소득 운동이 좀 더 넓고 좀 더 분명한 흐름으로 흐르는 것만을 바랐던 게 아니다. 도리어 한국 사회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커다란 변화를 겪을 수 있도록 그 바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을 기대했다. 이는 커다란 변화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기본소득 의제가 더 커다란 변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지만, 그 기대가 좌절되고 바람은 그저 흘러가버린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저 좌절이라든가 실망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우리가 밭 딛고 있는 터가 지독하게 낡았고, 그보다 더 지독하게 완강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돌아보면 시대의 위기라는 거대한 공룡이 지나가면서 남긴 커다란 발자국에 흘러들어 고여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발자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이 제법 차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고여 있는 것은 여전하다. 다만 대지를 흔드는 또 다른 충격이 올 때 다시금 흘러갈 수 있게 하는가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운동이 거대한 공룡의 발자국에 흘러들어간 물이라고 한다면, 2018년에 대한 평가는 진지전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진지전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기성 제도 속에 기본소득 의제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18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부(負)의 방향은 아니지만 엇갈리며 착잡하다. 다시 말하면 활동의 경우 분명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거나 세밀하지 못했으며, 조직의 경우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교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 1.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확산

이 주제 하에 우리는 일상적이고 고유한 활동으로서 두 가지 방향을 잡았었다. 하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라는 더 넓은 전망 속에 위치 짓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조직적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의 방식을 혁신하는 일"이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월례 세미나 실시, BIEN 대회 참가, 연합학술대회 개최 등을 했다. 여기에 더해 회원들 각자가 참여하는 학회와 연구 모임 활동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온다>의 출간부터 연합학술대회까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의 연구 활동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복지/ 재정 체제에서 기본소득 제도로 넘어가는 이행기 모델과 담론에 대한 모색이며,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아우르는 공유부라는 문제틀의 설정이다. 후자는 다시 전통적인 공유재인 토지에서 산출되는 공유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유재에서 나오는 공유부에 천착

함으로써 체제 전환의 문제까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네트워크 내적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분과학문 및 분야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합학술대회에서 제도적으로는 경기연구원, 분과학문/ 분야로서는 법학, 농민(농촌) 기본소득 정책 등이 함께 함으로써 그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모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생태적 전환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적절한 계기 없이 이루어지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시장주의로 미끄러진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 강화 사이에 머물고 있는 중도/ 진보 진영의 의제 설정 수준을 감안하고,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둘 때 이를 위한 의식적인 준비와 노력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홍보의 방식을 혁신하는 일"로 계획된 온라인 강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잘 수행되지 않았다는 평가 이외에 다른 평가를 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 강좌를 지역네트워크 활동 속에서 펼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지역네트워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며, 이는 "조직 확대" 항목에서 따로 다룰 것이다.

'뉴스 레터'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다. 하나는 내용과 형식 모두 미흡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발간함으로써 '뉴스 레터'의 초점 혹은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칭) '월간 기본소득'을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확산을 위한 계기적 활동으로 진행한 것이 '개헌 국면에서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과 지방선거 개입이었다.

우선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헌법적 권리의 수준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순회 캠페인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역 수준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후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헌 국면 자체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정치적인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계기 자체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2. 구체적인 정책화 및 정책적, 정치적 개입

이는 '기본소득 실험'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모델과 도입 방식을 둘러싼 담론 투쟁과 지방선거 정책 개발 및 '정책 연합' 참여의 두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하지만 전자는 기재부의 실험 설계 과제 공모가 (의도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아예 계기 자체를 상실했다.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후보 정책 질의와 정책 제안, 토론회 등을 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이기에 정책 질의와 정책 제안의 경우 지역네트워크가 있는 곳은 지역네트워크가 맡기로 하고 사무국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대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입수의 어려움과 업무량의 막대함을 감안해서 광역단체장 수준에서만 진행했다.

토론회의 경우 효과를 감안하여 취소하고 그 대신 정책협약식을 맺는 것으로 바꾸어, 서울 녹색당 신지에 후보, 제주 녹색당 고은영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경지지사 후보와는 일정상 정책협약식을 맺지 못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방선거 개입의 성과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위상 및 기본소득

의제의 지위를 상당히 반영하는 것이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전히 전국적인 수준에서 현실적인 정책 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 개입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확산이라는 사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의 성격상 지역네트워크의 인적, 조직적 자원에 따라 성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점에서도 2018년 지방선거 개입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정도와 방향의 성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예외이자 이후 활동의 방향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예외라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현재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기본소득 의제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예외적인 인물이기에 적절한 의미에서 정책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한다. 이후 활동의 예시라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형성하거나 발견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3. 조직 확대와 회원 활동

우리는 조직 확대를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회원 확대 및 지역네트워크 증가, 회원의 소속감과 활동력 제고, 지역네트워크의 독자적인 활동력 제고 및 연대 활동 강화, 사무국 역량의 강화 등을 목표로 삼았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조직 확대와 활동은 약보합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조직의 논리로 볼 때 이는 수확체감의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처지를 감안할 때는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회원 증가를 살펴보면 증가율이 10퍼센트(40여 명)에 그쳤지만, 회원 수가 5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다. 지역네트워크는 다섯 개의 준비위원회(제주, 경기, 충북, 광주, 마포)가 활동 중이지만, 한두 곳을 제외하곤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지역네트워크도 절반 이상이 최소한의 활동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단체 회원의 경우에는 두 곳(참교육학부모회,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이 늘었다.

사무국의 경우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체 입안 사업과 요구되는 활동 자체가 늘어나면서(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 1) 회원의 확대와 재정 수입 확대

일인당 회비 규모와 교부금 등을 감안할 때 사무국이 인력을 확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회원의 두 배 규모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자연적인 증가에 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다. 회원 확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원 확대 이전에도 재정 수입 확대는 꼭 필요한 일로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은 회비 증액과 외부 사업의 수주이다. 외부 사업 수주는 2019년 사업 계획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회비 증액의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성격과 응집력 정도로 볼 때 회원들의 자발적인 증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 2) 지역네트워크의 안정화

지역네트워크가 제한된 활동에 머무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재정과 인력 모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교부금 수준은 대부분의 지역네트워크에게 상징적인 수준이며, 전북네트워크를 제외하면 전업 활동가 혹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상황을 바꿀 만한 계기나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가능한 활동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벌이는 것 그리고 이를 지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의 재정 규모 그리고 지역네트워크의 주요 활동가의 처지 등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고유의 사업을 최소한의 정기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고유의 사업은 교육 활동과 캠페인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이 지역네트워크의 상황과 계획을 좀 더 잘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본다.

## 3) 회원 활동

네트워크의 회원 활동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네트워크의 활동력에 따라 회원 참여 활동이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경기도와 지역네트워크 자체가 없는 서울은 이른바 일상적이고 대면적인 회원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은 네트워크 활동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네트워크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회원 활동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회원 활동과 관련해서 앞서 평가한 바 있는 ‘뉴스 레터’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용 있는 간행물로 발간하여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작더라도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사무국 확대

양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한해를 돌아보면 한 명의 사무국장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주, 회원의 자발적 참여, 운영위원의 집행 역할 분담 등이다.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의 집행 역할 분담은 절차가 필요한 일이기에 당장 집행할 수는 없지만 외주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5) 법인화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기부금지정단체) 추진

한국에서 법인 설립은 담당 부처의 재량 사안이기엔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와 경기도 두 군데를 관할로 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았으나 두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다. 하나는 다른 활동에 비해 우선순위를 밀렸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 결과를 따라 판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는 법인 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 4. 주요 사업 평가

### 1) 국제교류사업

BIEN 대회와 세계기본소득주간 한국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IEN 뉴스 교류는 대표적으로 잘 수행되지 못한 일이었다. 상임이사와 사무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몇 건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방향의 개선과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개선은 담당자가 이 영역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고, 대안은 자원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계획에 없던 사업이지만 의미 있게 진행된 것은 세 번 열린 '기본소득 워크숍'이다. 해외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이 행사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로서는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2) 국내교류사업

#### (1)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

개헌 국면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기성이 사라졌고, 따라서 원래의 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확산과 조직화라는 일반적 목표 및 진행 속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양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수행한 활동만큼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 집중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 등을 연 것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할 만한 것은 개헌 캠페인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른바 상층 연합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기본소득 의제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활동 일반의 수준에서나 특정한 사업의 수준에서 이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 (2)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의 확산과 부분적 제도화 단계 속에서 "최근의 기본소득 연구 성과를 총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19명의 발표자가 7개 세션으로 나누어 참가했으며, 연인원 150명의 청중이 함께 했다.

- 전체 세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임을 감안할 때 공유부라는 초점이 된 주제를 다루는 한편 법학, 농민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세션 등을 포함함으로써 연합학술대회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세력 및 기관과의 교류 및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연구원과의 공동주최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등이 참가한 것이다. 또한 강원대 삼척캠퍼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단체 참가는 이후의 추세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일이었다.

- 학술적 수준에서 볼 때 분야와 주제를 더 확대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는 철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여성 등 기본소득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세션 운영 방식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좀 더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세력 및 기관과의 교류 및 연합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수준에서 개방성과 집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개방성은 다양한 정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교류 필요성을 말하며, 집중성은 (네트워크가 단일한 정치 조직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해당 시기, 해당 사안에 대해 효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조직화, 재정, 운영 등 세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 가장 큰 것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더욱 규모가 커질 연합학술대회의 준비 시점을 여유 있게 정해야 할 것이며, 조직위원회 혹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지출 규모와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운영과 관련해서 발표자 조직, 발표문 입수, 필요한 자료의 제작, 세션 운영, 리셉션, 후속 조치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네트워크의 재정 규모와 관습에 따라 대체로 부족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3)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 행사명: 2018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 BIG Wave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 단체들이 모여 연 파티로서 학술적, 교육적 행사를 주로 해온 네트워크로서는 처음으로 한 행사이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가했으며, 특히 십대 후반에서 시작하는 청년층이 많이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통로로 기본소득을 접하고,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활동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 이 행사의 발상은 학술적, 교육적 통로와 정치적 장 이외의 방식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공간과 통로를 만들어보자는 사무국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 배경에는 과거와 달라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운동의 통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번 행사는 충분히 그 의미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문제이다.

-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약간의 행운이 겹치면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고, 프로그램도 다채로울 수 있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십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 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적절한 교류와 연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사업평가

### I. 들어가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2017년 띄어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회원의 증가와 새로운 활동양식을 만들어 냈지만 후속사업과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2018년을 시작했다. 대전에서는 띄어쓰기 프로젝트 이후 일부 청년그룹들이 청년 배당 및 청년수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수의 토론회가 개최되는 상황이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성장하는 단계였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 기본소득 의제는 여전히 소수의제였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는 지방선거 대응 및 대중강연과 회원모임의 정례화를 목표로 내실을 다지는 것을 1년 목표로 한해를 시작하였다.

### II. 사업평가

#### 1. 지방선거 대응

시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후보자가 있기는 했으나 선거 공약으로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실패했다. 단체 상근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민하게 질의서 작성 및 대응이 늦어졌다. 이후 실무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실무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 2. 회원 모임의 비 정기성

새로운 신입회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공부모임을 진행했으나 구성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실패했고,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후속 모임을 형성하지 못했다.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소수지만 안정적인 회원 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 III. 나가며

2018년의 단체 운영 전반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에 따라 운영위원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지역의 기본소득 의제 개입 및 단체 내부의 안정화가 주요한 과제였으나 한계를 보였고 지금은 2월 총회를 통해서 대표 교체 및 운영위원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사업평가

### I. 2018년 사업

#### 1.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인천광역시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에서 정책질의 답변
- 정책협약식: 노동당(후보 2인), 녹색당(후보 1인) 참가

#### 2. 기본소득 홍보 및 캠페인

- 상반기: 기본소득 청년조례 홍보(월 1회 캠페인 진행)
- 기본소득 홍보부스: 메이데이, 염전골마을축제 등에서 기본소득 홍보 부스
- 기본소득 현수막 게시: 시기에 맞춰 30개 게시

#### 3. 기본소득 회원모임

- 2018년 평가 및 2019년 계획 논의

### II. 2018년 평가

-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협약식과 2017년 준비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했지만 성과는 미비했음.

- 거리캠페인과 현수막 부착 등을 일상적인 활동은 벌어나갔지만 지방선거 이후 활력있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본소득 운동의 확산은 어려울 전망. 주요공략 대상,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사업평가

주. 이 사업평가는 2019년 1월 19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이뤄진 평가이다.

### I. 2018년 사업별 평가

#### 가. 심포프로젝트

심포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에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지점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 같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의 인원 및 장소(객사, 풍납문, 전북대 구정문 등)에 비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여파로 2018년은 위원들의 소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백서 작업 등이 지연되었다.

#### 긍정적인 점

지역에서 학자를 영입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띄어쓰기 프로젝트와의 큰 차이점)  
지역사회에 기본소득을 알릴 수 있는 큰 기회였다.

#### 아쉬운 점

위원들의 높은 소진율이 보였다.  
중간의 담당자 교체로 자료 누락 등의 혼선이 있었다.  
대상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상자의 연락 부재 등의 변수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 나. 전북네트워크 회원의 밤

전북네트워크의 기존 사업은 주로 기본소득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과의 교류는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회원들과 운영위원들이 교류하고, 회원들에게 전북네트워크 후원에 보답하는 취지로 회원의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 21명의 인원이 회원의밤 행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비회원이 회원의 권유로 참여한 경우가 높았다. 준비 및 진행 등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총회가 아닌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하지만 경매 프로그램이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다. 행사 자리(그리고 경매를 준비하던 시기까지)에서 겪어보니 서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정성스러운 액자나 서화, LP판 등을 보내준 사람들도 그렇고 네트워크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처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가볍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행사는 큰 단체가 되었을 때 진행한다면 이 같은 부담은 적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준비하는 데 많은 수고가 예상되어 2019년에는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추후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총회와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다.

#### 다. 지방선거 (지방선거팀 지방선거 직후의 평가회의 결과)

##### 1) 목표는 적절했는가?

현탁: 기본소득을 전복의 화제로 만들지는 못했다. 선거 자체가 당과 인물 중심으로 주목받고 정책과 의제는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그래도 기본소득 정신과 약간의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유사 정책들(ex. 청년수당 등)은 전국 각지에서 많이 늘었다.

우주: 기본소득의 정신이 위 정책들에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박원순 청년수당류의 정책들이 각지에서 준비되고는 있지만, 무조건성의 불충분함이 아쉽다.

장원: 팀원들 중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어서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마음이 무거운 지점.

##### 2) 메시지 전략 평가

장원: 경과에서 상술한 문제로 메시지 전략 구축에 필요한 회원 간담회,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했다.

현탁: 메시지 전략, 지지대중 확보가 고민이 된다.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걸고 직접 선거를 뛰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은 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생소하고, 지식인층 아니면 아직 잘 모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 3) 정책제안 평가

은정: 실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제안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오랜 기간 동안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탁: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선거에서 풀어내는게 상당히 어렵다. 도지사 선거 정도가 기본소득 정책과 득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선거일 것. 실제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농민 기본소득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탁&우주: 네트워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통해 예산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 얻어낼 필요가 있겠다.

##### 4) 기본소득 후보 발굴 평가

은정: 완주군수 박재완 후보와의 협약식 관련, 후보가 이해하는 부분과 우리의 철학이 조금 다르긴 했다.

우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후보 공약은 '농가수당' 연 100만원이었다. 순차적으로 증액해나가겠다는 공약이었다. 완주군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완주에서는 실제로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다.

##### 5) 지방선거 총평

우주: 김현탁 이장원 위원이 선거로 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집행했어야 했는데, 개인 신상의 이유로 기세있게 참여하지 못했다. 아쉽고 죄송하다. 그래도 김현탁, 이장원 위원이 직접 기본소득 공약으로 선거를 치른 것이 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장원: 선거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기본적 소득 보장’으로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전히 개념 자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은정: 기본소득 자체가 아직 기본개념이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업무진행에 있어서는 같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처음 해보는 정책제안이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장원: 의제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주요한 활동이 정책 세일즈일텐데, 기본소득은 주요 정치세력에게 세일즈가 잘 안 되는 급진적 의제다. 우리 네트워크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하는게 아닐지 고민된다.

#### 라. 기본소득학교

회원들과의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본소득학교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상 자료였으나 참여인원이 저조하였지만(10명 내외), 많은 토론을 하며 심도 높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뒤풀이도 매번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꾸준히 그리고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평가한다.

한 달마다 호스트(진행자)를 바꿔가면서 기본소득학교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업무의 편중을 줄이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해당 달을 담당한 호스트에게 일정 비용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진행자에게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고(진행자가 고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운영위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상이 있어서 진행자가 더 많은 수고(ex. 필수로 ppt, 발제, 도서 등을 무조건 만드는 것)를 들이지 않아도 되었다.

2019년에도 기본소득학교를 진행하고자 하는 충분한 의사가 있다. 그러나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마. 조직사업

- 2019년 상근활동가의 계약기간 만료(=해고)로 별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부재하게 된다.

2월 6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앙 사업보고, 회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는 개인적으로 자원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한 달에 10만원의 수고비를 내부에서 책정하여 제공하고자 한다(운영방식의 변경)

내부적인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전북네트워크의 역량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기본소득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했을 때 무리를 덜 주기 위해서는 최소 담당자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길 바란다.

###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에서 바라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가. 지역에서 한국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 지리적인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 사회 활동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입장에서는 한국네트워크 총회, 회원의 밤, 전북네트워크 창립총회에 참여한 한국네트워크 등 모든 운영위원들이 환대해주었던 경험, 그분들을 만나면 반갑고 기분이 즐겁다. 하지만 지리적인 부분에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무척 크다.

- 3달에 한 번(혹은 6개월에 한 번)은 대전에서 한국네트워크 운영위를 열었으면 좋겠다. 운영위를 참여하면 한국네트워크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읽는다면 지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 같다.
- 지역네트워크 워크숍을 전주, 대전에서 진행했던 점이 좋았다.
- 제주도 같은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섬의 네트워크 위원들과의 접근 제한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

#### 나. 사업평가

##### 1)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2018년에 진행한 연합학술대회처럼 외부연사들을 설정하고, 행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다면 기본소득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2) 지방선거

- 중앙에서 보내준 정책질의서로 지역에서 일을 떨 수 있었다. 선거 이후 후보간담회를 통해서 후속을 통한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 한국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네트워크들이 모인 사업으로는 최초인 것 같다. 지역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추후에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정책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질의서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질의서가 예정에 비해서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지역에서 피드백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다. 내년 총선은 4월이므로 사전에 준비하면 좋겠다. 최소 3달 전에는 질의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후보 발굴 및 기본소득 의제의 확산이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 3)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주제로 나눈 논의가 실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지 않다. 각자 처한 지역의 입장이 달라서 나눌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다. 전북네트워크는 지역지부 중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중 하나이나 다른 지역지부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인 경우가 많아서 나눌 이야기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서 본 다른 지역지부들의 인상은 지역 특성상 모이는 것 자체에도 버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에서만 활동을 진행하다보니 그런 차이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날이었다. 1년에 한 번쯤 지역네트워크가 서로 만나는 경험은 좋으나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4) 기본소득학교

아래는 워크숍 회의에서 들은 평가를 나열하였습니다.

- 영상 자체는 모두 질적으로 좋은 내용이었다. 공통된 포맷으로 피피티를 만든다면 시각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목을 끌만한 시각적 요소가 필요하다.
- 가능하다면 김찬휘 선생님이 PPT를 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 오준호 선생님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 선생님들 영상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김찬휘 선생님이 굉장한 언변과 사람의 이목을 끌며, 포인트를 잡아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음이 잘 느껴졌다.

- 김찬휘 선생님 특집으로 기본소득학교를 진행하고, 멋들어진 편집이 있으면 조회수가 높게 상승할 것이다.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사업평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을 오가며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 회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전남에서 기본소득 정책논의가 활발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2018년부터 이미 실시하거나 2019년 실시 확정된 곳도 있고, 9개의 기초지자체에서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남 광역지자체에서는 농민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기본소득’ 개념이 명확해지기 전에 ‘농민수당’, ‘농촌수당’, ‘농가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튀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면서 개인의 삶이 변화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가 주어지는, 모두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입장을 알려낼 필요가 있다.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사업평가

주. 이 사업평가는 2019년 1월 3일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이다.

### I. 2018년 사업계획

#### 1. 회원사업.

##### 1)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총회

- 회원총회를 통해 공식 출범.(강연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2)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회원의 날

- 상반기/하반기 2차례 진행

##### 3) 회원 공부모임

- 회원들 중심으로 기본소득 공부모임이 진행 중(1월 11일 시작).
- 주 1회 온라인기본소득학교와 기본소득 책이나 관련 자료들 공부

#### 2. 기본소득캠페인사업.

##### 1) 정기캠페인

- 정기 시민캠페인진행(격주 1회)
- 기본소득 개념, 재원, 효과 등을 내용

##### 2) 기본소득개헌 집중캠페인

-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바람을 모으는 집중 캠페인 진행(개헌 운동을 하는 다른 단위들과 연계하여 집중 행사를 계획해 볼 수도 있음).

##### 3) 대학가 캠페인

- 강연이나 공부모임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본소득을 알리는 캠페인 연계. 청년/대학생 상황에 맞는 언어로의 홍보 필요.

#### 3. 기본소득강연회사업.

##### 1) 기본소득 대학생 강연회

- 청년/대학생의 현실과 이슈에 맞는 설정으로 강연 및 토크쇼, 콘서트 등을 진행해볼 수 있음.

##### 2) 기본소득 시민 강연회

-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이 가질 의미에 대해, 다양한 영역과 시선으로 풀어내는 시민 강연회 진행

## II.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 1. 회원모임

- 2월 회원모임 : 2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신천동 평화캠프사무실
- 9월 회원모임 ; 9월 20일 저녁 7시 생명평화나눔의집

### 2. 2018년 지방선거 대응

- 한국네트워크 차원의 지방선거 워크숍 등은 참석했으나 대구 차원의 지방선거 대응을 진행하지 못한 것 아쉬움.

### 3. 캠페인 사업

- 3~4월 진행.
- 지방선거 국면 이후 캠페인을 진행할지 논의했으나 캠페인보다 회원 중심 사업으로 진행하자고 논의됨.

### 4. 온라인기본소득학교

-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5주의 온라인기본소득학교 진행함
- 1차시: 2부 기본소득의 역사
- 2차시: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3차시: 4부 사회정의와 기본소득
- 4차시: 5부 선별소득보장 vs 기본소득
- 5차시: 6부 기본소득의 효과, 7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 온라인 신청자는 20여명 가까이 있었으나 피드백이 없었고, 수료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아 강의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오프라인 참여자 수는 너무 적었음. 홍보의 문제.
  - 향후 이번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유튜브 강의를 많이 홍보하여 노출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 내용은 너무 어려운 정도는 아니어서 공부하기 편했음. 강의시간이 짧았던 것도 좋았음. 몇몇 강의는 재미가 없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보기 힘들었음. 김찬휘 선생님만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음.
    - 운영위원 중심으로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음.
    - 직접 강의영상을 제작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음.
    - 강의 후 참가자들의 질문들을 해당 강사가 짧은 답변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듯.
    - 김찬휘 선생님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메인 강사로 했으면.
    - 온라인강의 방식은 활용도가 좋음.

### 5. 기본소득슬로건 공모전

- 공모전 참여가 많았음(300여명 참여). 심사해본바, 내용에 깊이는 없었음.
- 기본소득슬로건 참여자들의 리스트를 통해 기본소득 관련 행사 등을 홍보할 수 있음.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사업평가

### 1.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 미흡

-전국 단위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 및 논의 단위에 참석하였으나 지역에서 실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각 정당 후보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질의서 전달 및 정책 공약 이행 등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부산네트워크의 역량 부족과 부산지역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비한 가운데 본 사업을 실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 2. 각 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

-기본소득 강사 양성, 강연회, 공부모임, 홍보 및 캠페인, 지역 연대활동 등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구성이 중요한데, 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이라 낮에 실무 회의 및 작업을 해내긴 많이 힘들었다.

-실질적인 운영위를 꾸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회원 중심으로 회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교훈 삼아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 대학생 회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대학생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낮에 실무적 작업을 완료한 후 퇴근길 캠페인 활동을 하던 강연 프로그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3. 총평

2018년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반성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사업수지결산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회비		61,888,070	①인건비	2인 급여, 4대보험, 퇴직연금, (지방)소득세, 인적용역비	37,802,850
②명예회비		-	②일반관리비		4,848,560
③특별회비	전북 상근활동 지원 등	14,207,640	③연구교육사업비	월례세미나 회의비, 온라인 강의 영상 제작비 등	401,600
④기타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예금이자, 사업비 분담금 등	3,255,659	④국내교류사업비	토론회, 지방선거 정책협약, 연합 학술대회, 네트워킹파티, 기본소득 관련 행사후원 등 사업비	4,671,540
⑤전년이월금		12,921,712	⑤국제교류사업비	기본소득 워크숍, 제18차 BIEN 대회, 기본소득 포럼 등 사업비	1,515,560
			⑥홍보사업비	웹소식지 제작발송비	2,400,000
			⑦조직사업비	제6차 정기총회, 회원의 밤, 운영 위/정기이사회 회의, 회원 행사 교통비 지원 등 사업비	3,281,640
			⑧지역목적사업비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17,516,000
			⑨기본재산조성비		9,000,000
			⑩이월금		10,835,331
계		92,273,081			92,273,081

[참고] 2018년 지출결산 세부내역

목	예산액(원)	내역
①인건비	37,802,850	
사무국 급여	30,850,950	
4대 보험료	3,235,660	
퇴직연금 부담금(2월~, 2인)	2,593,810	
인적용역비	934,000	
사무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188,430	
②일반관리비	4,848,560	CMS 사용료/수수료, 통신비, 사무물품비 등
③연구교육사업비	401,600	
월례세미나 회의비	150,500	
폴무학교 간담회(강의) 진행비(다과)	17,700	
온라인기본소득학교 강의영상제작비	233,400	
④국내교류사업비	4,671,540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사업비	385,000	
기본소득 지지단체 후원금	180,000	
2018년 지방선거 정책협약사업비	539,460	
이정전 명예교수 초청대담 사업비	360,200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사업비	1,584,820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파티 사업비	1,435,060	
경기네트워크(준) 토코콘서트 사업비 지원	100,000	
행사포스터 거치용 롤배너 제작비	87,000	
⑤국제교류사업비	1,515,560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1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사업비	236,120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사업비	362,640	
2018년 제18차 BIEN대회 사업비	560,000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사업비	356,800	
⑥홍보사업비	2,400,000	
웹소식지 제작발송비	2,400,000	
⑦조직사업비	3,281,640	
2018년 제6차 정기총회 사업비	812,940	
2018년 회원의 날 사업비	1,204,940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사업비	631,900	
운영위/이사회 회의비	126,860	
지역네트워크 행사참가 지원비	505,000	
⑧지역목적사업비	17,516,000	
대전네트워크 교부금	5,180,000	1~12월 교부금
인천네트워크 교부금	2,304,000	1~12월 교부금
전북네트워크 교부금	4,780,000	1~12월 교부금
전남네트워크 교부금	1,620,000	1~12월 교부금
대구네트워크 교부금	1,600,000	1~12월 교부금
부산네트워크 교부금	2,032,000	1~12월 교부금
⑨기본재산조성비	9,000,000	
⑩익년 이월금	10,835,331	
계	92,273,081	

[참고] 지역네트워크 수지결산

### 2018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1,734,783	
	교부금	연간교부금	5,180,000	
	기타		41,289	이자 및 교통비지원
	합계		6,956,072	
지출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101,500	
		사무실임대료	601,000	
		분담금	201,000	
		비품		
	사업비	조직사업비	662,600	
		기획사업비	303,110	
		홍보비	30,500	
		잡비	190	
	이월금	익년이월금	5,056,172	
	합계		6,956,072	

### 2018년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712,524	
	교부금	연간교부금	2,304,000	
	기타	결산이자	1,253	
	합계		3,017,777	
지출	관리운영비	사무실임대료	240,000	월 2만 원
		사무품 구입비	10,000	
	사업비	기본소득 정책협약식	35,000	현수막
		메이데이 캠페인	210,000	기본소득커피나눔
		기본소득 현수막 부착	180,000	30개*3,000
		거리캠페인	150,000	6회*30,000
		애플/발전기 수리	200,000	
		마을축제 홍보부스	105,500	
		온국민기본소득대회 참가	100,000	
	김장나눔 지원	100,000		
이월금	익년이월금	1,687,277		
합계		3,017,777		

## 2018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891,629	
	교부금	연간교부금	4,780,000	1월 교부금 포함
		일반후원금	110,000	
	기타	쉽표프로젝트기금	3,000,000	3, 4 대상자 지급액
		회원의밤 수익금	568,000	
		지원금	300,000	
		예금이자	906	
		기타	1,500,000	1월 사무국 급여비
합계		11,150,535		
지출	관리운영비	비품 및 소모품비	180,200	
		수수료	10,300	
		기타	1,500,000	1월 사무국 급여비
	사업비	쉽표프로젝트	3,022,500	
		기본소득학교	463,560	
		출장비	348,000	
		회의비	241,000	
		총회	330,400	
		워크숍	317,530	
		회원의밤	268,010	
		지방선거	29,500	
		기타	110,000	
	이월금	익년이월금	4,329,535	
	합계		11,150,535	

## 2018년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결산

	항	목	금액(원)	비고
수입	이월금	전년이월금	362,102	
	교부금	연간교부금	1,620,000	
		2018총회, 학술대회 교통비 지원금	40,000	
	기타	예금이자	1,019	
	합계		2,023,121	
지출	관리운영비	결산소득세	120	
	사업비	운영위원회회의비	108,000	운영위원회회의참석 교통비지급
		교통비	205,000	정기총회, 학술대회참가
	이월금	익년이월금	1,710,001	
합계		2,023,121		

## 2018년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결산

	항목	금액(원)	세부사항	
수입	이월금	313,059		
	교부금	1,635,000		
	기타	예금이자	618	
		기타수입	85,000	총회 지원, 회원모임잔액, 회원모임후원
	합계		2,033,677	
지출	관리운영비	인건비	-	
		사무품 구입비	-	
		통신비	-	
		회의비	30,000	
	사업비	기본소득 시민강연회	320,400	온라인기본소득학교, 슬로건 공모전
		선전홍보활동	90,500	온라인기본소득학교 페이스북 광고비
		회원모임 사업비	255,250	2월, 9월 회원모임
		행사참가 지원비	360,300	BIKN 총회 및 기본소득행사 참가 지원
	이월금	익년이월금	977,227	
	합계		2,033,677	

## 2018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결산

	항목	금액	비고
수입	전년이월금	5,239	
	교부금	2,032,000	
	이자	92	
	합계		2,037,331
지출	회의비(회원 모임)	210,200	회원모임 2회
	행사참가 지원비	244,400	BIKN 총회 및 기본소득행사 참가 교통비 지원
	선물비	50,000	부산복지개발원장 취임식
	수수료	1,600	이체
	익년이월금	1,591,131	
합계		2,097,331	

